



'광주예술천ON프로젝트'가 오는 13일까지 광주천 일대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아트빌리지 모습.



한옥에서 놀장



서창한옥문화관

서창한옥문화관, 6일 '이음의 장' 공연·전시·체험·농산물장터 등

'전통한옥으로 문화 나들이.' 황금 들녘과 역세가 어우러진 서창의 풍경을 누릴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2021년 서창문화제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 공간 서창한옥문화관에서 6일 낮 12시~오후 6시까지 열린다. '한옥에서 놀장(場) - 이음의 장'을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는 '전통과 현대의 이음', '세대와 세대의 이음', '자연과 사람 이음'으로 구성되며 공연, 전시, 체험, 농산물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1부 공연마당에서는 서창한옥문화관 프로젝트 밴드 '소음밴드(소통하는 음악밴드)', 퓨전국악밴드 '라온'의 무대와 '달빛가야소리'의 가야금 합주, 전통연희놀이연구소의 사자춤 공연을 만난다. 2부 공연마당은 버블타이거의 '매직 버블쇼', 깨비매직의 '매직 불쇼'로 구성되며 강희희 작가의 자수 작품 전시회 '溫故知新?'도 열린다.

'세대와 세대의 함께 이음.場'에서는 전통공예, 전통원예, 전래놀이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자연과 사람과의 Eco 이음.場'은 미래의 지구를 생각하며 '지구 살리기'를 직접 우리 일상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버려지는 양말목을 이용한 공예작품만들기와 서창한옥도서관과의 협업으로 준비한 책 순환 장터 '바꿔가세요, 나눠 주세요' 등이 진행된다. 또 '소분shop'의 친환경 주방세제 나눔 행사에서는 용기를 가져 오는 사람에게 300ml까지 무료로 세제를 나눠준다.

그밖에 청(청소년)·순(순환) 상점의 친환경 제품 소개와 판매처 연계도 진행하며 서창지역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도 준비돼 있다. 사전 예약 문의 062-373-136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천변, 일상예술쉼터가 되다

견기 좋은 가을 날이다. 붉고 노랗게 물들어가는 나무와 잔잔히 흐르는 물길, 소박한 돌다리를 만나는 광주천변을 산책하는 이들이 눈에 띈다. 광주천변이 문화예술현장으로 깜짝 변신했다. 광주천 남광교·학림교 인근에서 열리는 '광주예술천ON프로젝트'를 통해서다.

4일 째는 현장에선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작은 돔 형식의 재미있는 구조물을 만났다. 남광주 철교에는 광주천에 살고 있는 수달 등을 소재로 한 이조흠 작가의 작품이 걸려 있다. 도심에 흐르는 광주천은 다양한 행사를 펼치기 좋은 공간임에도 지금까지 활용도가 미흡했던 게 사실. 이번에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들에게 '발견'돼 근사한 예술쉼터로 변신했다.

달린 전시장과 무대를 벗어나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지역을 밝히는(ON) 이번 아트프로젝트는 광주천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일상 예술

쉼터'로 탈바꿈시키는 출발점이다.

'정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프로젝트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9명의 청년 생태문화활동가 '광주천그리너'와 7명의 청년 작가들이 의기투합해 꾸린 프로젝트로 전시, 버스킹,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양림공목비엔날레 등을 개최한 양림미술관거리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전력이 힘을 보탰다. 오프라인 전시는 13일(오후 3시~밤 9시)까지 열리며 온라인 전시는 비대면으로 광주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광주예술천 주제전'에는 7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이조흠 작가의 '새, 수달, 물고기'를 비롯해 시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서린 뽕뽕다리를 재해석한 김경란 작가의 '뽕뽕다리 2021',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할 광주천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깃털 모양의 설치 작품인 최희원 작가의 '결코 가볍지

'광주천그리너'·청년 작가 7명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전시

'정원' 주제 전시·버스킹·체험

않은' 등이 전시됐다.

또 광주천의 생명체들을 모티브 형식으로 제작해 난간에 매단 정승원 작가의 '구(球) 연작', 리서치로 광주천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을 담은 김자이 작가의 '쏘설리서치(휴식의 기술)', 광주천을 집 앞 정원처럼 들여다보는 메시지를 던지는 설박 작가의 '아주 사소한 풍경', 조은솔 작가의 '숨 Exhalation'을 만날 수 있다.

광주천그리너가 직접 설계해 지오데식 돔으로 만들어진 아트 빌리지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조은솔 작 '숨 Exhalation'

열리는 공간이다. 광주천의 풍경과 그 곳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직접 채색해 보는 '광주천 컬러링', 광주천에 앉아 여유롭게 독서하는 '정원 책방', 광주천의 미래를 그려낼 시민들의 소통의 장 '그리너의 일기장' 등이다.

또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도 열리며 정원&피크닉 컨셉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는 즐거움도 누린다. 문의 070-4239-504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마법벨트' 세계

정다운 전, 12일까지 주안미술관

정다운 작가 개인전 '마법벨트'가 오는 12일까지 주안미술관(광주시 동구 제봉로 197)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정 작가가 창조한 '정다운 월드'의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기획으로 서브컬처 문화에 대한 다채로운 시각을 접할 수 있다. 전시에서는 애니메이션 컨셉 제작발표회 형식을 차용, 기존에 정 작가가 구축해온 판타지와 그의 세계관으로 표출된 작품들을 전통 유희기법과 디지털 프린트로 만나볼 수 있다.

'정다운 월드'는 다양한 아이돌 캐릭터 성장 등이 어우러진 어드벤처 마법소녀물이다. 그의 작품 속 마법벨트 세계는 안드로이드도 흑성에서 탈출한 개구리 성인의 우주선이 지구에 불시착하면서 시작된다.

우연한 계기로 여고생 1학년 '안경아'는 개구리 성인이 주축한 오디오 합격, 갤럭시 엔젤스 2기 멤버



'space_girl'

버 리더가 돼 빛의 우주 연합 대표로 악의 세력 다크 스타와 대적해 다양한 댄스와 멜로디를 이용한 대우주콘서트를 진행해야하는 운명에 처한다.

정 작가는 판타지에 등장하는 다양한 캐릭터를 그린 작품을 전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아름다운 '가을의 프락'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 8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광주지역 장애예술인이 참여해 아름다운 가을의 결실을 선보이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광주 서구와 서구의회가 주최하고 광주장애예술인지원협회(회장 전자광)가 주관하는 '가을의 프락'(8일까지)전이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에서 열리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기념해 기획된 이번 전시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그간의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작업을 해온 장애인 작가들의 작품 23점을 선보이며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삶이 되고, 여유로움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한국화와 문인화, 서양화 등을 만날 수 있다.

유태환 작가는 '길'을 출품했으며 김영하 작가는 '시골여행'을, 김인화 작가는 '성산일출봉'을 선보이고 있다. 또 박진수 작가의 '해바라기', 최상현 작가의 '설악의 서정', 조영문 작가의 '나들



조영강 작 '청량산 소년'

이, 김영주 작가의 '찰나' 등도 볼 수 있다.

전시에는 유태환·최상현·황기환·남기운·이봉화·이성기·배경숙·강정애·김은아·홍정호·안용욱 등 23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문의 010-7605-895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